사회적농업

운영매뉴얼

마을공동체 돌봄형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Ⅰ.사회적 농업의 이해

1. 농업·농촌의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농업과 농촌은 인류를 먹여 살려왔을 뿐 아니라 문명의 근간이었다. 그러나 근래엔 그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농촌은 사람이 떠나는 곳이 되었고 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또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사라졌기에,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생활기반을 이루는 모든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되었다.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만 지어도 농촌에서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현실은 농민이 '생산'의 역할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농민들이 생산은 물론 가공과 유통, 판매까지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가공을 통한 창업, 유통, 체험, 홍보마케팅, 인터넷 활용 등은 여성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수요조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내용이다. 정부시책이나 지역의 여성농업인 관련단체들이 진행하는 교육들도 위와 같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물론 농산물의 가공, 유통, 홍보 등은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농업인에게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이처럼 농촌은 청년 인구의 감소, 노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의 고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수많은 당면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이 지금껏 유지되어왔던 데에는 여성농민들의 힘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농촌의 부족한 인프라를 메우는 역할이 상당 부분 여성들에게 맡겨져 있다. 여성농민들은 농업생산 뿐 아니라 마을 대소사 활동에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문화를 지탱하는 존재들이다. 또한 여성농민들에겐 논과 밭에서 농사를 마쳐도 집에 돌아오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다. 요리와 설거지, 육아, 돌봄, 청소 등 가정에서의 재생산 노동역시 여성농민의 몫이기 때문에, 이들에겐 농업노동에 더해 가사노동의 무게가 가중되어 있다. 여성농민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이 일 저 일을 다 잘 해내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농촌에서 버텨낼 수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귀농 여성농업인에게 농업·농촌 생활을 하며 여성으

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을 물었을 때,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에 부족한 체력'(34.1%)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가사노동과 농업노동 병행의 어려움(23.4%)이 그 뒤를 이었다.[1] 이외엔 '농기계 및 시설 사용의 어려움'(14.3%), '농촌사회의 남녀차별로 인한 활동 제약'(11.4%) 순이었다. 농촌에서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농사일의 고됨은 자연히 따라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성농민들은 농사일에 더해 가사노동을 요구받고, 성차별에 의해 활동영역이 축소되는 등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생활 속에서 마주해왔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응답하듯, 농림부에서 발표한 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1~'25)은 '성평등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쉼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2] 세부 계획을 들여다보면 여성농업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 역할을 재조명하고, 성 평등한 농촌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화된 세상 속에서 농촌사회가 지속가능하려면, 농촌의 중요 구성원인 여성농업인들의 역량과 역할을 제고하고 성평등한 농촌으로 거듭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나아가 여성농민이 앞장서서 새로운 문화를 주도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때 농촌의 사회, 경제, 문화가 유지·존속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어떠한 이유에서?)

한편 노령의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있어서도 복지수혜대상자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노령여성농업인이 가진 수십년의 농업경험과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나아가야한다. 전통지식에 기반한 농경문화를 되살리고, 농업현장에서의 핵심생산인력인 여성농업인들에게 잘 맞는 생산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며 소비자를 조직하는 새로운 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는 여성농민들의 주도아래 지역사회와 전국단위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먹거리 공동체 '언니네텃밭'을 만들었다. 주 사업은 지역의 여성농민공동체가 생산한 건강한 먹거리를 직거래로 소비자와 연결하는 제철꾸러미 사업과 토종종자 복원 등의 식량주권 사업이다. 여성농민들이 자신의 얼굴을 걸고 다양한 농작물과 가공품을 생산하며, 이들의 뜻에 함께하는 소비자들이 정기적으로 제철먹거리와 여성농민 생산자의 이야기가 담긴 꾸러미를 받아본다. 노령의 여성농민 '언니들'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농작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19, p.151
2) "농식품부, 제5차 ('21~'25)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0년12월30일자

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언니네텃밭'은 안전한 먹거리 세상을 만드는 활동이자, 여성농민들의 자립과 농촌의 재건을 위한 생산자·소비자들의 연대이다.

'언니네텃밭'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국여성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의 소비자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결성해 첫 꾸러미를 보낸 이래, 지난 십 수 년 간의 활동을 통해 전국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언니네텃밭'은 여성농업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여 여성농업인의 삶에 변화를 주었을 뿐 아니라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언니네텃밭'의 사례를 통해서도 보았듯, 농촌에서 마을단위 여성농민공동체가 갖는 지위와 역할은 무궁하다. 나아가 생산과 연계한 돌봄, 배려, 교육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농촌 문화가 필요하다.

<언니네텃밭 전국 꾸러미(10개),장터(7개) 공동체 현황>

2.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

언니네텃밭의 생산자 공동체 중 횡성공동체의 사례를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언니네텃밭 횡성공동체(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는 전국단위의 언니네텃밭 사업소 중에서 가장 먼저 공동체를 이뤄 꾸러미 사업을 시작한 곳이다. 횡성의 여성농민들은 영농조합법인 '텃밭'을 이루어 농민가공공장을 세웠다. 여성농민들이 주도해 만든 이 공장에서 여성농민이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횡성공동체 여성농민들의 생산과 가공을 거쳐 만들어진 두부와 직접 기른 농산물로 먹거리 꾸러미를 구성해 소비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횡성공동체는 위와 같은 활동을 통해 소농 여성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어 가며 "얼굴 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먹거리 공동체"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또한 횡성공동체는 횡성지역 내의 또 다른 여성농민공동체이자 언니네텃밭의 생산자 공동체이기도 한 오산공동체, 도새울 공동체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면서 농촌 지역사회에 활력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농촌지역과 여성농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언니네텃밭'엔 앞서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었던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가 현실의 문제로 닥쳐있다. 고령의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서 손을 떼고 집안에 있거나, 농사의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입거리를 찾아 지자체의 노인일자리로 가는 현상이 횡성 지역의 언니네텃밭 생산자 공동체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8년도에는 꾸러미 공동체 1개가 문을 닫게 되었다. 또한 횡성의 오산공동체의 경우 70대 이상의 고령 여성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나, 새로운 젊은 여성농업인이 유입되지 않고 있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언니네텃밭'이 전국단위의 조직으로 성장하고, 지역 내에서 많은 활력을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화 되는 농촌의 문제들이 고스란히 '언니네텃밭'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고선, 농업·농촌 그리고 여성농민들의 삶과 궤를 같이 하는 '언니네텃밭'의 사업도 지속가능하지 않다.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고민은 농산물 판로 확보의 수준을 넘어, 다방면으로 이뤄져야한다. 귀농·귀촌인들이 마을과 농업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과정들을 만들고, 농촌을 살 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모두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고령 여성농업인들이 적절한 농업활동을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또 한걸음, 사회적농업을 통해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은 가족과 지역의 먹을거리를 생산해내고 마을공동체 문화를 지켜온 여성농민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꿈이 있는 곳이다. 횡성언니네텃밭은 마을공동체와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밥상나눔을 진행하려 한다. 농업의 진정한 가치인 나눔을 통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며, 농업의 순기능인 돌봄과 배려의 문화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사회복지모델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횡성언니네텃밭

■ 목표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 또 다른 농경문화를 만들고 자립, 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빈곤한 고령여성농업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 내 노인 장애인·아동·청소년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농업·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생산원칙

○ 제철농사로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먹을거리 생산
○ 친환경 농법을 지향하는 먹을거리
○ 지역에서 생산한 지역 먹을거리
○ 전통적인 먹을거리 문화계승
○ 토종씨앗으로 생산한 먹을거리

■ 세부목표(활동)

○ **사회적농업 :**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지역공동체(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여한다.

○ **제철꾸러미와 장터(직거래,온라인)** : 소비자회원이 월 회비를 내어 여성농민 생산자공동체를 지원하면 생산자는 제철에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매주 발송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농업 참여자들의 자립과 농업·농촌 정착에 기여한다.

○ **소비자연대 공동체 활동** : 생산자공동체와 소비자가 교류하여 함께 하는 농업을 만든다. 생산자들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민이 주체가 되는 농업을 실현한다.

○ **지역네트워크구축** :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한 민·관 협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Ⅱ. 사회적 농업 활동 실행

1. 활동 추진 체계

■ 사회적 농업 운영 목표

마을공동체형 사회적농업은 사회적 약자(고령여성농업인, 정착하지 못한 귀농·귀촌여성, 세상과의 소통이 필요한 장애여성)들이 살아가기에 각박한 농촌이 아닌, 서로 돌봄을 통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농업·농촌을 만들 것이다. 또한 화석화 될 위기에 놓인 고령여성농민들의 전문적 농업지식을 마을 구성원들에게 생생하게 전수하고,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 마을공동체형 사회적농업은 이웃의 관계가 단절된 현재의 가족 돌봄에서, 본래의 농촌공동체가 해왔던 마을 돌봄의 영역과 지역사회 돌봄 영역을 확대하여 공유하도록 이끈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농업실천이다.

(1) 농업·농촌의 사회적 돌봄

효율성에 근거한 근대의 문화는 자연스레 농업과 농촌에도 스며들었고 “나부터 살아야한다”는 각자도생의 사회문화를 만들었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그래도 되는 일이 되어버렸다.

두레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겼던 본래의 농촌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당연히 마을이 함께 품는 존재들이었다. 갈수록 열악하고 각박해지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농촌의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 내 고립되어 특정 기관 안에서만 보호받으며 사회와 단절될 위기에 놓여있다. 농촌의 사회적 약자는 농업활동에서도 주변부로 밀리고 각종 질환을 안고 사는 고령여성농업인, 주변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귀농귀촌여성, 다른 사회구성원들과의 교류가 절실한 장애여성, 점점 줄어드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이다. 이들을 사회적 농업 대상로 삼아, 사회적 돌봄을 함께 경험하며 지역사회의 건강한 주체로 거듭나도록 지원한다.

(2) 마을공동체 사회적 농업 교육 - 세대 간 연결

도시에서 살다 농촌생활을 꿈꾸고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은 지역사회 적응과 농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경험해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은 누군가 손잡아주고 함께 할 때 조금씩 해소될 것이다. 그 역할을 사회

적농장과 농사경험이 많은 마을의 농민이 할 수 있다. 씨앗도 뿌려보고 풀도 뽑아보며, 시기별로 다르게 심어지는 농작물들을 기르고 수확하는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농사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농사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떨치며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공동체일원으로 소속감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농장은 귀농·귀촌인, 장애인, 노인, 다문화여성 등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계절과 절기에 맞는 시기별 농업활동을 진행한다. 씨앗 넣기부터 수확과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사짓는 기술 습득 뿐 아니라 협업을 통한 배려심과 협동심 등을 기를 수 있고, 농사경험이 있는 마을 주민과 농사 선후배로 자연스럽게 관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자연스레 마을로 스며들어 농촌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마을주민들과 교류하며 세대 간 연결 가능성을 키운다.

(3) 마을공동체 사회적 농업 - 돌봄과 교육을 동시에

마을에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과 일터와 삶터가 일치하는 마을 주민일 것이다. 마을에 살며 마을구성원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 그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나누는 활동을 진행한다. 먹거리를 나누기 위해 서로의 공간을 오가며 마을공동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농업을 통해 농촌의 부족한 복지인프라를 채워나갈 수 있다.

또한 마을에 정착하고자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 교육을 받는 귀농·귀촌인 참여자를 고용한다면, 그가 마을 구성원들과 관계 맺으며 소속감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사회적농장은 농장이면서 돌봄의 장소 또는 교육의 장소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마을의 농사경험이 많은 농업인(고령여성농민)들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 사회적 농업보유 자원

농(農)의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 복지, 고용을 통해서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들이 있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음. 문장예시 : 농(農)의 가치를 중심에 둔 교육, 복지, 고용을 통해서 농촌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인적, 물적, 사회적 자원들을 얻을 수 있다.) 농업의 중심활동으로 농업생산 활동 뿐 아니라 치유·돌봄·생태 환경적 기능까지 포함하여 바라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인적·물적·사회적 자원이 필요하다.

1) 인적자원

사회적 농업의 핵심 실천 주체는 농업인이다. 농업과 돌봄 등 다기능 사회적 농업 활동에 중심을 둔 마을공동체가 지속가능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서비스 인력지원이 필요하다. 마을단위 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위를 활용한다면 농업인 외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사 등의 전문가 결합도 가능하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인적자원

성명	소속(마을,단체)	프로필	주요활동
ㅇㅇㅇ	횡성읍 추동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전통음식전수
ㅇㅇㅇ	횡성읍 추동리	농업인, 귀촌	언니네밥상,
ㅇㅇㅇ	횡성읍 내지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전통음식전수
ㅇㅇㅇ	우천면 하대리	농업인, 귀촌	언니네밥상
ㅇㅇㅇ	우천면 하대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ㅇㅇㅇ	우천면 하대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ㅇㅇㅇ	공근면 오산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전통음식전수
ㅇㅇㅇ	공근면 오산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ㅇㅇㅇ	공근면 오산리	농업인, 귀촌	언니네밥상
ㅇㅇㅇ	공근면 도곡리	농업인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ㅇㅇㅇ	공근면 어둔리	농업인, 다문화	언니네밥상, 농사교육
ㅇㅇㅇ	ㅇㅇㅇ농업인센터	센터장,농업인	기획, 문화(천연염색), 토종씨앗 교육
ㅇㅇㅇ	영농조합법ㅇㅇㅇ	사무장	언니네밥상, 전통음식전수

ㅇㅇㅇ	영농조합법ㅇㅇㅇ	이사	언니네밥상, 전통음식전수
ㅇㅇㅇ	ㅇㅇㅇ영농조합법인	대표, 농업인	농사교육, 무인판매 농산물 유통
ㅇㅇㅇ	ㅇㅇ사회적협동조합	농업인	청소년인문학교실노작수업
ㅇㅇㅇ	ㅇㅇ심리상잠센터	전문상담사	자아찾아떠나는여행, 귀농귀촌
ㅇㅇㅇ	ㅇㅇ꽃그림	농업인, 강사	자아찾아떠나는여행,언니네밥상 염색
ㅇㅇㅇ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사	마케팅, 지역 장터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 간호사,복지사	자아찾아떠나는여행, 이동, 참여자관리

2) 물적자원

사회적 농업의 물적 자원은 각 농장이 보유한 산림, 노지, 비닐하우스, 상자텃밭 등 다양할 것이다. 이러한 자원 환경에서 사회적 농업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육장, 화장실, 쉼터, 주차장 등 공간은 추후 마련하도록 한다.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공간자원

구분	마을공동체(ㅇㅇ리)	마을공동체(ㅇㅇ리)
사회적 농장	비닐하우스 100평 임대	비닐하우스 100평 임대
교육 실습장	25평(공유부엌포함) 꾸러미작업, 교육, 반찬만들기	15평 꾸러미작업, 교육
쉼터 및 교육장	몽골텐트	비닐하우스
비고	실습장내 내부 화장실	외부화장실
* 횡성언니네텃밭은 소농여성농민들이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이다. * 농사교육은 임대한 농장과 여성농민 농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 참여자 교육은 농장에서 이루어진다, * 마을 어르신 돌봄은 마을주민 중심으로 진행, 반찬만들기는 법인 공유부엌 활용한다. * 지역사회 등 외부교육은 지역기관단체와 협력(여성농업인센터, 농업인회관, 영농조합법인 텃밭) 활용하고 있다.		

■ 사회적 농업 운영 계획

사회적 농장은 생산 활동과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의 사회구성원'에게 돌봄, 교육, 고용 등을 제공하게 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이 사회적 농장의 주 활동이 되거나 또는 부차적 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농장의 지속성을 위해 '사회적 농장 운영'에 관한 단계적 계획의 수립·진행이 필요하다.

(1) 단기(1~2년)

사회적 농업 1~2년차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쌓고, 참여자 욕구 파악에 근거한 사회적 농장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인, 귀농·귀촌인, 청소년 등 다양한 참여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편리한 농장작업 환경 외에 화장실, 교육장,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기존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별도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초기 단계에는 다양한 참여자와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기보다 농장이 있는 마을이나 접촉이 가능한 개인 단체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농업활동을 실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을에서 사회적 농업활동으로 사회적 농장의 경험이 축적되면 지역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다.

(2) 중장기(3년차 이후)

3년차 이후는 사회적 농장이 있는 마을공동체에서 지역으로 확장 하여 지역사회 단체와 적극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개별 농장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지역으로 연결망을 확장하려면 마을 주민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 마을의 농민 주민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장 참여자 개인이나 마을공동체가 상호 연계하여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는 지역사회 연계망 활용 필요하다.
(문장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음
문장예시 1 :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과 마을공동체가 상호 연계하여, 참여자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문장예시 2 : 사회적 농장과 마을공동체의 사회연계망을 활용해 사회적 농장

의 프로그램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는다.
선택-문장예시 3 : 사회적 농장의 프로그램참여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정착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연계망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단체 기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 활동 참여자와 활동 내용을 통한 지속적 사회적 농업 활동 필요하다.
(이 문장도 마찬가지. 문장예시 : 지역사회 단체 기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사회적 농업 활동이 필요하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운영 계획(안)

구 분		내 용	비고
사업목표		사회적 약자들이 힘을 합쳐 또 다른 농경문화를 만들고 자립, 자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든다. 빈곤한 고령여성농업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 내 노인 장애인·아동·청소년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간다.	
사업내용	1년차	- 사회적 농업을 구체화시킬 사회적 농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토종 농사와 노작을 통해 배우는 인문학주말교실 - 지역장터 직거래협의체 참여 및 운영 - 사회적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진행 -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상품개발 *사회적농업 기반 구축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행인서원사회적교육협동조합, 농부발자국영농조합법인 연대 협력	'19년
	2년차	- 귀촌여성농업인정착지원 농사교육,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 - 제철꾸러미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농업활동 및 역량강화교육 - 농산물 가공시설 확충으로 '즉석제조가공업' 취득, 고용 및 소득향상기여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상호돌봄 "언니네밥상"운영 (2개마을)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강릉지회 체험활동 * 지역공동체 돌봄 활동 기반 구축 * 꾸러미공동체 2개마을 밥상나눔	'20년
	3년	- 귀촌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농사교육, 후계농 양성 꾸러미공동체 유지기여	'21년

	차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상호돌봄 “언니네밥상” 2개 마을 추가 확대 –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 주간보호센터 연계 활동 – 전통 식품 가공과 판매 디자인 교육 시행 – 농산물 즉석제조가공 ‘언니네텃밭’ 상품개발 및 판매 – 협동조합의 일꾼 양성 – 귀농귀촌 기관 연계 활동(횡성 한달살기 지원사업 대상자 연계참여 등) * 지역공동체 돌봄 확대 읍,면 4개마을 · *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대 구축 *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열린사회서비스센터, 산채마을영농조합법인,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4 년 차	– 귀촌여성농업인 정착지원 농사교육, 후계농 양성 꾸러미공동체 유지기여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상호돌봄 “언니네밥상” 2개 마을 확대 3개읍 면지역 6개 마을 진행 – 생산, 소비자 협동. 협의체 구성 –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기업 농업·농촌 공동체 연계망 구축 – 귀농귀촌을 준비 또는 정착을 돕는 기반 구축 – 농가소득 다원화 * 지역공동체 돌봄 확대 정착 읍,면 6개마을 · * 네트워크 확대 참여자 소득기반 구축–소비자협동조합	‘22년
	5 년 차	– 지역순환 사회 구축(사회적농업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비자협동조합) – 농업의 자원 순환(귀농귀촌 및 공동체 참여자생태농업 교육 및 실천) – 네트워크 구축된 기관 및 사회적농장 협력 사회적농업 지속 자원마련 * 사회적농장 지속가능한 기반 구축–지역사회 연계 확대	‘23년

2. 사회적 농업 주요 이용자 이해

■ 이용자 행동 및 심리 특성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방안

1) 고령(여성)농업인

농업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여성)농업인은 고된 농업활동의 주변부로 밀려 각종 질환을 안고 있다. 농업활동을 중단하는 고령(여성)농업인이 늘고 있고,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은 줄어들고 있다.

농업활동을 중단한 고령노인의 경우, 혼자 식사를 하거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심한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거나 사고의 위험도 높다.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사람들과 어울려 이야기 하거나 활동함으로써 치매 진행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한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마을에 살면서 마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 활동가들이 참여하기에, 참여자들의 연륜을 존중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고령(여성)농업인들이 선배 농업인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게끔 도울 수 있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언니네밥상'

- 목적

마을에 살고 계신 고령여성농업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말벗도 하며 맛있는 한끼 밥상을 차려서 나눈다. 또한 우울증 등 마음을 병을 안고 사는 여성농업인들과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상호 돌봄 활동으로 더불어 살고자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여 - 밥상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이 어우러진 돌봄

- 일　　시 : 2021.03.01 ~ 11.31 2시간~3시간
- 장　　소 : 4개 마을
- 참석인원 : 총 40명 ~50명 : 고령노인(고령여성농업인) 및 꾸러미공동체
- 내 용 -

날짜(기간)	마을	내용	강사
4월~11월 (월1회)	ㅇㅇ리	- 밥상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이 어우러진 돌봄 - 마을거주 여성농업인이 마을 어르신돌봄 - 꾸러미 공동체 참여하는 여성농업인이 고령농업인 상호돌봄 - 반찬지원, 말벗 (제철에 생산되는 채소 반찬 과일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 발효음료)	마을주민 2인
	ㅇㅇ리		마을주민 3인
	ㅇㅇ리		마을주민 3인
	ㅇㅇ리		마을주민 2인

2) 귀농·귀촌

최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자하는 욕구를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 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여행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농촌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세대구성원의 일부만 먼저 이주를 하거나, 세컨하우스의 형태로 주말에만 농촌을 향유하거나, 1인가구의 이주 등 다양한 형태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을 자기 삶의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많다.

특히 생태적 귀농을 지향하는 여성의 경우는 일상적인 농업 환경 안에서는 농촌에 녹아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귀농귀촌인보다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지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사회적 농업 활동은 생태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거주 농업인이 직접 진행한다. 교육을 통해 희망하던 생태농업을 방법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지역민을 만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동시에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마을공동체 및 지역공동체로 연결하는 판매망도 필요하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귀농·귀촌 '함께하는 텃밭'

- 목적

농촌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토종

농사 및 제철농사 교육과 실습지를 제공하여 농사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직접 농사지은 농작물을 꾸러미 등으로 판매하고, 지역공동체와 인연 맺기를 꾀한다.

- 일　　시 : 2021.03.01 ~ 11.31 2시간~3시간
- 장　　소 : 사회적농장 및 마을 주민 개별 농장
- 참석인원 : 총 3명~10명
- 내 용 -

날짜 (기간)	마을	내용	강사
3월~ 11월	ㅇㅇ리	- 다양한 품종 씨앗 파종~수확 판매 - 농산물 거두미, 갈무리 교육 실습 - 횡성언니네텃밭 소개, 사회적농업 설명 - 제철꾸러미 공동체 방문 꾸러미 실습 - 관계 맺기 마을 어르신 돌봄 참여 ("언니네밥상" 반찬나눔 강사 참여)	마을주민 및 여성농업인
	ㅇㅇ리		마을주민 및 여성농업인

3. 활동 내용

■ 활동 장소

사회적농업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 활동으로 사회적농장과 마을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음. 문장예시 : 사회적 농업은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한다?)

수정- 사회적 농업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으로서 실천 장소는 농장과 사회적 활동이 바탕이 되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 돌봄과 귀농·귀촌 교육은 마을공동체의 돌봄 및 다양한 활동과 배움으로 이어지며, 마을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적농업 활동은 참여자가 활동하는데 거부감이 없고 안전한 장소에서 이루어 진다. 사회적농장 및 지역 단체 및 기관 교육장에서 활동을 병행 할 수 있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활동 장소

시간	구분	활동내용	장소
오전 오후	'함께텃밭'	- 다양한 품종 씨앗 파종~ 수확 판매 - 농산물 거두미, 갈무리 교육 실습	사회적농장 2곳 둔내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
오전 오후	'언니네밥상'	- 4개 마을 어르신 반찬나눔 돌봄	사회적농장 4개 마을
오후	'언니네두레반'	- 전통음식전수 및 제철 농산물가공 교육 및 실습	사회적농장 열린사회서비스센터 영농조합법인 텃밭
오후	자아찾아 떠나는여행	- 경증치매어르신 농업활동 통한 인지력 향상 및 우울감 해소	사회적농장 횡성군치매안심센터

■ 활동 시기 및 횟수

농사는 계절과 절기에 따라 1년 12달 계속되는 작업이기에,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된다. 시기별로 심고-가꾸고-수확하는 과정으로 교육을 구성해, 농장의 여건과 역량에 맞게 횟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마을공동체 노인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마을 지도자와 연계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생활상태와 영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횟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지역단체 및 기관 연계 농업활동은 사회적 농장과 단체 및 기관 협약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시기와 횟수를 정하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 활동의 상세

(1) 사전 기획

사회적 농업을 시작하기 전, 마을활동가 및 마을이장, 부녀회장, 어르신 관련 기관 담당자 등을 만나 사회적농업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농업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등 내용을 공유하고 참여자를 발굴하여 활동에 연계한다.

(2) 농업농촌의 사회적 돌봄 프로그램

사회적 활동이 취약하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고령(여성)농업인과 노인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역사회 연계망을 활용해, 건강한 마을 공동체가 지속·유지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사례1)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 하는 '언니네밥상'

- 목적

언니네텃밭 공동체가 있는 마을 및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농업인들이 어우러진 돌봄이 이뤄지게 한다. 맛있는 밥상을 나눔으로써 고령여성농업인들의 건강도 챙기고 말벗이 되어준다. 또한 우울증 등 마음을 병을 안고 사는 노인들과도 함께 밥상을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이러한 상호 돌봄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고자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한다.

- 활동장소 : 횡성읍면 4개 마을 가정 방문
- 참여자선정 : 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 활동 강사 : 마을주민 및 활동가
- 활동내용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철에 생산되는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각 가정 배달.

반찬지원, 말벗, 문화 활동 지원 등 고령(여성)농업인지킴이 활동.

구분	횡성읍 추동리	우천면 하대리	공근면 오산리	공근면 도곡리
대상가구/시기	12	11	11	12
4월	계란말이,오이지	잡채,김치,두부	카레,김치류3과	삼계탕,김치,유

	,마늘쫑무침,김치,방울토마토,요쿠르트	과일, 유산균음료	일유산균음료	산균음료
5월	두부조림,미나리나물,물김치,장아찌,사과츱	삼계탕, 김치,과일, 유산균음료	돼지고기볶음, 쌈채소,참외, 유산균음료	계란말이,나물, 김치,장아찌, 오미자음료
6월	아욱국,계란말이,겉절이,김치, 호박잎,음료	계란찜,두부조림,김치,장아찌, 음료	돼지고기볶음, 셀러드,김치, 고춧잎나물, 오이무침	짜짱,상추겆절이,오이지_무침, 음료
7월	삼계탕,김치, 음료	카레,계란말이, 김치,애호박전	삼계탕,김치, 장아찌,식혜	삼계탕,김치, 장아찌,참외
8월	짜장,배추김치, 요쿠르트	삼계탕,김치, 장아찌찌,음료	짜짱,김치,계란	짜장,꽈리고추볶음,김치,음료
9월	가지나물, 표고버섯, 부추김치, 음료	짜짱,두부, 뽕잎장아찌, 음료	계란말이, 돼지고기볶음, 열무김치, 무말랭이무침, 음료	돼지고기볶음, 꽈리고추무침, 김치,
10월	삼계탕,김치, 계란	삼계탕,계란, 열무김치,음료	삼계탕,김치, 고추장아찌무침	삼계탕,김치, 두부

사례2)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자아 찾아 떠나는 여행

- 목적

나이든 노인에게 소소한 건망증은 당연하게 인식되면서, 치매 치료시기를 놓쳐 가족과 격리되고 사회와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농업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몸을 쓰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활동으로 노인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잃어가는 기억을 늦추는데 기여한다.

- 참여자 : 치매안심센터 참여자 어르신 10명(여8명,남2명)

- 활동 일정

구분	시간	내용	강사	장소
1회기	2시간	집단상담 (이야기 꺼내기)	심리상담 전문가 외 2인	치매안심센터
2회기	2시간	들풀 및 농작물 활용 (두드림 손수건염색)	마을농업인 외 1인 보조강사2인	사회적농장 치매안심센터
3회기	2시간	옥상텃밭 만들기(실외)	마을농업인 외 1인	사회적농장 치매안심센터
4회기	2시간	농장활동 (나도 이름이 있어요)	마을농업인 외 1인	사회적농장
5회기	2시간	나만의 화분만들기 수확활동 및 맛보기	마을농업인 외 1인	사회적농장 치매안심센터
6회기	2시간	집단상담 (나를 찾아 돌아보기)	심리상담 전문가 외 2인	치매안심센터

(3) 마을공동체 사회적 농업 교육 프로그램

도시에서 살다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사 경험이 없는 참여자와 농업·농촌생활에 관심을 갖고 준비 중인 참여자를 위한 시기별 농사교육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장은 계절과 절기에 맞는 시기별 농업활동을 통해 씨앗 넣기부터

수확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 참여자는 농업활동을 통해 농사짓는 기술 습득 외에도 협업을 통한 배려심과 협동심 등을 기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을에서의 농사경험이 마을 주민과 관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귀농·귀촌인들이 자연스레 마을로 스며들어 농촌마을의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는 세대 간 연결이 될 수 있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귀촌여성에서 여성농업인으로의 정착 지원 '함께하는 텃밭'

- 목적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귀농·귀촌여성에게 시기별 농사교육 및 농사 실습지를 제공하고, 농장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경제적 자립을 꾀할 수 있게 도우며, 공동체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정착할 있도록 기여한다.

- 활동장소 : 실습농장 2곳(횡성읍 추동리, 공근면 오산리) "함께 하는 텃밭"
- 참여자 : 귀농·귀촌 여성
- 활동 강사 : 마을 농업인

- 활동내용

구분	추동리 농장	오산리 농장
강사	마을(여성)농업인 2인	마을 고령(여성)농업인 2인
참여자	귀농·귀촌 인(여성)	귀농·귀촌 인(여성)
11월~2월	월동작물 파종 관리, 토종 곡식 판매	
3월	멀칭, 파종	
4월	토종강낭콩 파종, 감자 심기	
5월	상추, 토종 참외, 고구마 심기	
6월	양파수확, 양상추 수확, 풀 관리	
7월~9월	토종강낭콩 수확 및 타작, 쪽파파종, 풀 관리	
10월	고구마수확, 토종땅콩 수확 키질 실습	

(4) 지역연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농업·농촌의 유입 지원정책으로 귀농·귀촌인 교육과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등 을 사회단체 및 관 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자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장은 귀농·귀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한다.

(무슨 의미인지 분명치 않음

문장예시 : 농업·농촌의 유입 지원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귀농·귀촌인 교육, 한 달 살아보기, 6개월 살아보기 등을 사회단체 및 관 진행 프로그램 참여자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이 때 사회적 농장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운영한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안)

귀농귀촌 농업연계(횡성에서 살아보기)

- 목적

모두를 위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활동을 경

험하고 제철꾸러미 실습을 받는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농업·농촌 적응을 돕고 횡성으로 정착을 돕는다.

- 활동장소 : 사회적 농장 및 꾸러미 공동체
- 참여자 : 귀농·귀촌 6개월 살아보기 10명
- 활동 강사 : 마을 농업인
- 활동내용

구분	시간	내용	강사	장소 및 준비물
1회기	2	횡성언니네텃밭 사업 및 사회적 농업 이해교육	대표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2회기	3	제철꾸러미 견학 및 실습	농업인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3회기	3	횡성에서 살아온 토종이야기 교육 및 채종포 농업활동	농업인	토종씨앗 채종포
4회기	3	제철꾸러미 견학 및 실습	농업인	공근면 오산리 오산공동체
5,6회기	3	옥수수 수확 활동	농업인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7,8회기	오전2시간 오후2시간	토종강낭콩 수확 활동, 고르기	농업인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9,10회기	오전2시간 오후2시간	메리골드꽃 수확 차 만들기 실습	꽃나드리 협동조합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11,12회기	2시간(2회)	참여자 임대농장 농업활동 및 수확관리 교육	농업인	둔내 산채마을
13회기	3	참여자 임대농장 수확물 꾸러미 작업 판매	농업인	횡성읍 추동리 횡성공동체

■ 참여인원

찾아가는 마을 돌봄은 내부인력이 한정적이므로 참여자 10인 이상이 된다면 시간적으로 세밀한 관찰과 밀착 돌봄이 어려울 수 있다.

귀농·귀촌 시기별 농사교육 등의 농장 활동은 농장의 규모와 내부 협력 인력에 따라 참여자가 다를 수 있다.
농사는 시기별로 이루어지기에 농작물 재배방법과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농작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을 농업인과 협업을 제안한다.
(이 내용이 이 위치에 놓이는 것이 맞는지 확인)-맞습니다

4. 사회적 농업 활동 시 유의점

마을활동은 모두가 아는 사람이다.
농촌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웃집의 숟가락 개수도 안다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농촌마을의 특징은 주민들이 서로의 사정을 잘 알 뿐 아니라 또 그 소식이 모두에게 전파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 활동을 할 때엔 좀 더 행동을 조심하고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사연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말조심을 해야 한다.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을이장님과 부녀회장님의 협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응급구조
- 출혈 또는 화상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등을 활용 응급조치를 한다.
- 응급환자가 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구조 활동을 실시한다. 다만 지나치게 위험한 상황의 경우 무리하게 구조 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출혈	출혈 시 직접 압박법을 이용하여 지혈
화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참물에 상당기간 식혀주고 화상부위를 거즈로 덮음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 기도유지→ 인공호흡 순서로 처치 (인공호흡이 자신이 없는 경우 가습압박만 실시)
자동제세동기(AED)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십정지 환자에게 시행
응급이송 및 지원	응급환자 발생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119 구급차를 불러 이송

Ⅲ. 네트워크

사회적 농업은 농업이 중심이 되어 돌봄·교육·고용을 실천하는 다기능 농업으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마을·농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이 되어야 한다.

1. 지역 내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돌봄 유형의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 및 마을과 협력하고, 농업분야 단체와 비농업분야 단체·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의 농업활동을 추진 한다.

사례) *주요내용 칸 붉은글씨 앞 ‘ 작은 따옴표 표시 오탈자인지 확인.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역 내 관계기관 현황(역할)

연계 대상	주요내용	비고
강원도 및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 농업 활성화 교육 기획 진행 ○ 사회적 농업 포럼 및 신규 사회적 농장 발굴 ○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회적경제 마케팅 연계	기획, 진행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 경증 치매노인 프로그램 연계 추진	치매 진단검사 및 참여자 발굴 관리, 모니터링
횡성심리상담센터	○ 치매안심센터 참여자 교육 및 집단상담 ○ 노인, 귀농·귀촌 인 상담 등 정서지원 연계	전문상담원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 귀농·귀촌 프로그램 연계 교육,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교육을 통한 참여자연계	참여자 발굴
열린사회 서비스센터	○ 성인 발달장애인 농업 및 꾸러미 활동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농장 출퇴근 지원	참여자 및 전담인력 1명
사회적협동조합 행인서원	○ 농업과 연계한 청소년 활동	청소년교육
횡성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	○ 교육·문화 기획 지원사업, 교육장활용	강사 및 지원
영농조합법인 텃밭	○ 지역농상문 수매로 소득연계 및 가공,	농산물가공 및

	교육장 활용	소득 지원
식생활네트워크	○ 농업인식개선 및 우리농산물 이용 캠페인	판매 및 소비자연계
산채마을 영농조합법인	○ 귀농·귀촌 살아보기 참여자 사회적농업 교육 참여 의사 조사 및 안내	참여자 연계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돌봄 연계	참여자 발굴 모니터링
횡성읍, 면 마을	○ 찾아가는 '언니네밥상' 4개 마을 진행 22년 6개 마을 확대예정	이장, 부녀회장 참여자발굴
꽃나드리 협동조합	○ 농업 활동 교육	강사지원
횡성군여성농민회	○ 토종씨앗채 교육 및 채종포 농장 활동	농장, 강사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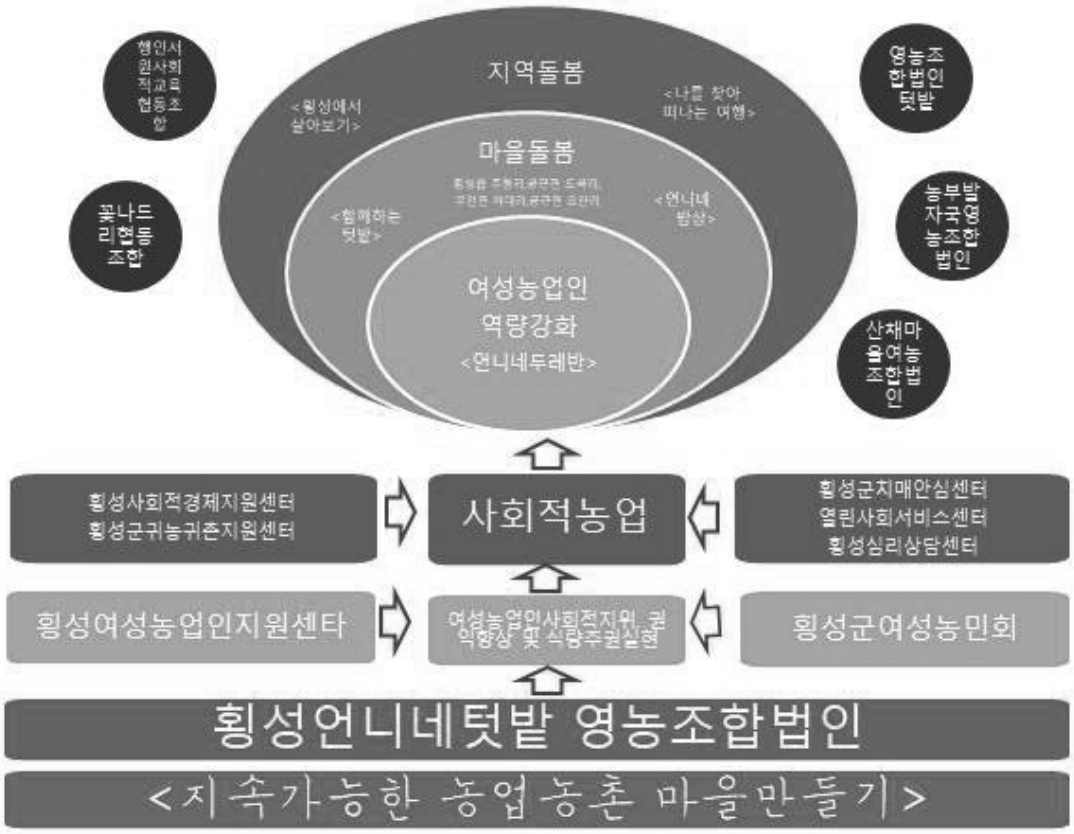
2.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지역 내 네트워크는 사회적 농업 활동 과정에서 구축한 네트워크를 기본으로 하되, 이후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행정과 협조를 바탕으로 지자체내에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농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장 보유 단체, 여성농업인들과 귀농·귀촌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농촌정착에 도움을 줄 각종 교육단체,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환경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의 연계도 높여야 한다.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넓혀 가기 위해서는 공감을 이끌어 내는 홍보활동과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 체계구축 필요하다
네트워킹에 동의한 기관과 상호협력계약(MOU) 체결이 필요하다.

사례)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농업 활동


지역돌봄
<횡성에서 살아보기>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마을돌봄
<협력하는 텃밭>
<언니네 밥상>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언니네두레반>
행인서원사회적교육협동조합
꽃나드리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텃밭
농부발자국영농조합법인
산채마을여농조합법인
횡성사회적경제지원센터
횡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
사회적농업
횡성군치매안심센터
열린사회서비스센터
횡성심리상담센터
횡성여성농업인지원센타
여성농업인사회적지위 권익향상 및 식량주권실현
횡성군여성농민회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마을만들기>

Ⅳ. 활용서식 및 예시

1.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활동보고서 양식

2.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밥상'-
활 동 보 고 서

활동일시	2021 년 월 일 : 시 ~ 시 : (시간)			
장소				
강사				
참여 활동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서명(확인)

활동내용	
활동보고 (개선사항)	

2. 강사비 양식

영 수 증

원 (₩)

2021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밥상' -

(강사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21년 월 일

강 사 명	(서명)
소속 및 지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 금 계 좌 (은행명)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목적)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교육 강사비 지급 증빙
◆(수집항목) 주소, 계좌번호, 거래은행명, 성명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근거 : 국고금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동의 거부관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예산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수당지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날인)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목적)「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교육 강사비 지급 증빙지급을 위한 실명 확인
◆(수집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기간) 지출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근거 :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동의 거부관리 안내)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예산회계 처리가 불가하여 수당지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1. . .

(성명) (서명, 날인)

3. 농(특)산물공급 및 판매대금 수령확인서

농(특)산물공급 및 판매대금 수령확인서

❍ 사업명 :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 농산물 공급자 : (주민번호 :)
❍ 물품판매금액 : 금 원(₩)
❍ 산출내역 :

❍ 수령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와 같이 2021년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고령여성농업인과 함께하는 '언니네밥상'을 진행하기 위한 농산물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확인자(공급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명(대표): (서명)

횡성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대표 귀하